

# “설 민심이 政局 판가름” 여야 고향 앞으로

13일 본회의를 끝으로 1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종료되자 여야의 쟁점 법안에 대한 홍보전이 본격화됐다.

설 민심이 2월에 벌어질 '2차 입법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판단에 따라 여야 지도부 모두 당 차원에서 홍보전을 독려하고 있다.

의원들도 1차 입법 전쟁 와중에 비웠던 지역구를 찾아 설 민심 잡기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의원들은 특히 자신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넘어 지역구민들에게 쟁점 법안을 설명하며 자당에 유리한 여론 조성에 총력을 다한다는 각오다.

◇한나라당=이번 설을 계기로 쟁점법안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을 처리한다는 전략이다.

박희태 대표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당직자들이 나서서 각 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순회하고 쟁점법안이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당위성에 대한 홍보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원들의 홍보활동을 독려했다.

일단 한나라당은 145페이지 분량의 '주요

## ■ 각당 쟁점법안 홍보전 본격화

### 輿, 미디어·FTA 법안 해설자료 배포 野, 'MB악법 저지' 동영상·당보 발행

법안해설자료'를 각 의원들에게 배포, 효율적인 지역구 홍보전을 이끌 수 있도록 했다.

정책위원회가 제작한 이 자료에는 미디어 관련법안을 비롯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집시법개정안, 불법집단행위에 대한 집단소송법안 등 27개 쟁점법안에 대한 홍보 논리가 담겨 있다. 정책위는 민주당의 'MB악법'이란 용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살리기 보약법'이란 별칭을 만들기도 했다.

또 한나라당은 당 차원의 지역투어에도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2일 경기도당에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 한나라당은 이날 대구와 대전시당에서 쟁점법안에 대한 홍보

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15일엔 부산과 인천, 충북, 충남, 전남, 경남에서, 16일엔 서울과 광주, 울산, 전남, 20일엔 강원과 경북, 22일엔 제주에서 신년하례회 겸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민주당은 15일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한 달여 간 전국 각지를 돌면서 'MB악법 규탄 및 철폐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MB악법 저지투쟁' 경과를 담은 동영상과 신문방송 검열시 발생하는 피해를 정리한 동영상 등을 각각 제작하는 한편 특별당보를

발행해 대대적인 국민 선전전을 전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지역마다 지역 여론에 영향력이 있는 언론이나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정책간담회나 민생현장 방문 일정도 함께 수행해 대안당으로서 이미지 구축도 시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홍보지침서를 만들어 의원들의 의정보고회 등 귀향활동에 참고토록 했다. 지침서는 한나라당이 국회 폭력사태를 유발했다고 적시하면서 MB악법은 물론 정부 경제위기 대책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속 의원들도 지역구에서 의정보고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주요 시설을 방문하는 등 지역구 쟁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국회 파행의 원인과 'MB악법'의 문제점을 알려나가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울 전남도의회 지켜 봐 주세요”

### 토론회... 심포지엄... '열공' 모드로

전남도의회가 올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 집단을 초청해 의견을 수렴하는 각종 토론회를 활성화하는 등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하기로 했다.

14일 전남도의회가 발표한 2009년도 의회 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임위와 정책연구모임을 중심으로 10여 차례의 다양한 정책토론회와 심포지엄, 포럼 등을 갖고 이를 통한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3~4월 중에는 농업인 단체와 함께 농업발전 위한 토론회를 하고 남도 맛 산업육성을 위한 전문가 심포지엄도 열 예정이다. 6월에는 개방화시대 농어촌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계획돼 있다.

8월 중에는 ▲영산강 하도 준설 관련 토론회 ▲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심포지엄 ▲지방재정 보전방안 심포지엄 ▲그린 전남 관광 활성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9월에도 ▲농어촌 경로당 활성화 위한 심포지엄 ▲전남도립대학 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 ▲신 농업 사회 문화정책 방안 포럼 등이 개최된다.

이와 함께 전문가 초청 의정연찬회도 확대할 방침이며, 지난해 115일간 있었던 회기를 120일로, 이틀간 했던 예결위 심의기간도 5일로 늘려 국정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알맹이' 없는 행정사무 감사였다던 지적에 따라 올해는 집행부 자료제출 기한을 20여 일로 연장해 서류 검토 시간을 늘려 내실있는 행정 사무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밖에 그동안 일부 시스템 오류로 사용하지 않던 전자투표제를 이번 임시회부터 도입하기로 했으며, 의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조례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진보세력 민주연대 사무실 개소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진보개혁정치세력 민주연대 사무실 개소식에서 정세균(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축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광옥 전 대표 민주당 복당

### 전·현직 지방의원 17명도

민주당은 14일 당원자적심사위원회 의결을 열어 국민의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사진) 전 새천년 민주당 대표와 지난해 4월 총선 과정에서 무소속 후보를 도와 탈당하거나 제명된 목포와 해남·진도·완도지역구의 전·현직 지방의원 17명을 복당시키기로 결정했다.

한 전 대표는 노무현 정부 초기인 지난 2003년 6월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으로 구속됐다 2005년 7월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서 당시 구 민주당의 당적을



잃었으며 3년여 만에 복당, 정치활동을 재개하게 됐다.

전주 출신인 한 전 대표는 4월 재보선 지역인 전주 완산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전 대표와 함께 복당 의결된 인사로는 황정호·장일 전남도의원과 주만중·한승주 진도군의원, 김대중 전 목포시의원, 고승남·노상익·장복성 의원 등 현직 목포시의원 12명 등이 포함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근혜, 李 대통령 만나

### 30일 輿 최고·중진 청와대 초청... 박 전 대표 참석 여부 관심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30일 청와대로 한나라당 최고·중진 의원들을 초청, 쟁점법안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근혜 전 대표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후진타오(胡锦涛) 중국 국가주석 청와대 환영 만찬 때 잠시 자리를 함께 하긴 했지만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서로 간단한 인사만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 의원들의 복당 문제와 개각 논의가 정치 쟁점화됐던 지난해 5월10일 단독 회동을 한 뒤 사실상 지금까지 단 한번도 직접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이다.

전날 행사 사실을 보고받은 박 전 대표는 14일 아직까지 참석 여부와 관련한 입

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측근은 “30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사실 박 전 대표 입장에서 이 대통령이 중진들과 대거 만나는 자리에 일원으로 무턱대고 참석하는 자체가 편치않은 일이다. 더욱이 박 전 대표가 이 회동에서 신뢰 회복이나 현안에 대한 상호 협조 등 일정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위한 여권 대통합과 결속을 강조하며 모처럼 마련한 회동 자리에 박 전 대표가 이유없이 불참하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집권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국정 드라이브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박 전 대표와의 관계 개선이 절실하다. 때문에 이번에도 밥만 먹고 돌아서거나 혹은 회동 자체가 성사되지 않으면 이 대통령 정치력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치적 안팎에서는 회동 성사를 위해 이제부터라도 양측간 물밑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친박 의원은 “회동 일이 이미 정해졌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양자 간 관계 회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물밑 접촉이 있어야 한다”면서 “사전조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설사 박 전 대표가 참석한다 해도 큰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이시하라 망언' 여야 규탄

여야는 14일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도쿄도지사가 “북한이 중국에 통합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오만하면서 무식하기 짝이 없는 망언”이라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시하라 도쿄도지사의 '시중장 망언'에 대해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

다”면서 “사람이 무지하면 이렇게도 망가질 수 있다는 견본으로 삼을 만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제 정신을 갖고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느냐.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겠다는 다짐이 하루만에 연기로 사라진다”면서 “이런 발언을 듣고도 정부는 침묵만 지키고 있느냐”고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이희창 총재는 당정책위의에서 “오만하면서도 무식하기 짝이 없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수많은 시골, 그러나 한 도시엔

# 대한민국 NO.1 재혼전문회사

● 결혼 전문회사는 수없이 많지만  
재혼 전문회사는 없습니다.  
● 재혼전문, 성장하고 싶은 재혼 회사는  
바로 이 곳입니다.  
● 재혼전문, 성장하고 싶은 재혼 회사는  
바로 이 곳입니다.

## 7000 by (주) 행복출발

특수사업등록번호: 100-10-0000000000

문의: 02-527-3388

# 이오니아 1식 2조 퍼스티벌!

말벌리 미온수기, 로봇청소기, 개선효과 뛰어나기  
로봇청소기, 증정행사!

이온수기 구매시 로봇청소기 1식 증정행사를 실시합니다.  
말벌리 미온수로 건강도 챙기고, 로봇청소기까지 받으세요!

이제 바로 1식 2조! 돈 벌며 주는 미온수기, 이오니아, 이온수기를 놓치지 마세요!  
● 미온수기: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600만원 / 700만원 / 800만원 / 900만원 / 1000만원

IONIA 1544-1219